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평화 여정의 시작'

송하진 회장, "한반도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자" ...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모든 의제를 상시적 논의·조율

송하진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장이 대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 상시 논의체계를 갖춘 플랫폼 출범식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는 10일 송하진 협의회장이 정치·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반도 주민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주관한 이번 플랫폼에는 ▲정부(통일부, 복지부, 질병청), ▲민간단체(한국적십자사, 대한의사협회 등), ▲지자체(17개 광역중심), ▲국제기구(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 NCOs ▲학계·전문가 등 6개 분야 그룹이 참여한다.



이번 플랫폼은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의 열려있는 융합 플랫폼이자 통합 협의체로서 앞으로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전체회의는 출범 개최식에 이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이란 주제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추진방향,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플랫폼 참여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에 관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송하진 회장은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관계기관 간 연대를 통해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송 회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 한반도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ICT 활용 도민 건강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도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87.3%가 긍정적 평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가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뉴노멀(New-Normal)시대를 맞아 사람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필코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에리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시대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6년 부안군을 시작으로 2022년 무주군, 장수군이 최종 공모 선정되며 사업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검진 및 건강상태 면담을 통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기기와 앱을 활용해 건강 영양 신체활동 등 영역별 전문상담 개인별

건강 미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 비질환자 중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진 성인이다.

다만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 처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는 먼저, 총 3번 보건소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 위험요인을 확인한 후 신체활동, 영양상담 등 맞춤형 개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다.

또, 월 1회 영양사와 운동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관리받는다. 한편, 지난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1,288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들은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을 80.7%,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를 42.4% 수 달성하며 87.3%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경연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건강관리도 비대면으로 스마트하게 관리받는 시대가 왔다"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사업 확대를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상용차산업 활성화 · 산업전환 대응에 노사정 힘 모은다

전북 상용차 노사정협의회
공동 결의 · 촉구문 채택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가 상용차산업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제4차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용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경영계,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는 올해 4차례 협의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4차 협의회에서는 '상용차산업 노사정 공동 결의 및 촉구문(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산업 활성화와 고용인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 국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산업전환과 기후위



기에 따른 친환경화 · 디지털화 · 자동화 등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노사정이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됐다.

결의문에서 노사정은 산업전환기 지역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을 활성화하고 종합상용차생산거점으로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과 고용인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부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교육·훈련,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사회적 대화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상용차산업의 문제가 전북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간 산업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상용차산업 활성화 대책과 실효성 있는 고용인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인 신원식 도정무부지사는 "상용차산업 노사정은 지역 경제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라며 "우리 지역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와 상생 발전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 12명 채용

4급 3명 · 5급 4명 · 6급 5명... 오는 12월 개원예정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이 본부 직원 12명을 채용한다.

사회서비스원 정원은 20명으로 이종원장을 포함해 본부장, 팀장 등은 법인 설립 전에 1차로 채용한 바 있으며, 법인 설립 후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나머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번 채용하는 직급과 인원은 4급 3명, 5급 4명, 6급 5명으로 전북도의 인재 발굴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로 돼 있는 자로 거주지를 제한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채용 누리집(<http://job.tok.go.kr>) 등을 참고하면 되고,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채용 누리집을 통해 블라인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블라인드 지원서 접

수를 마감한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9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직원 20명 전원을 채용한 후 12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하고, 재가 서비스를 통한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시·군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따듯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수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2개소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이 믿고 안심하며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바다의 인삼 '해삼 30만마리 무상방류'

전북도가 어업인 효자 소득증대인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생산한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11월과 12월 이틀에 걸쳐 군산(비안도, 선유도) 및 부안(위도) 연안에 무상

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지난 6월에 수정란을 부화시켜 약 5개월간 사육해 체중 1g 이상까지 성장시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해삼이다.

2년 후부터는 상품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해삼은 바다의 대표적인 정화생물로 해저에 쌓인 유기물을 섭취 함으로써 해양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활동량이 적어 방류 효과가 우수한 품종이며, 바다의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약재로도 손색이 없다.

대표적인 알갈리성 해산물로 산성

화된 혈액을 중화해 신진대사 활성화와 혈액 정화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진다.

영양학적으로 품질이 우수해 국내 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요가 많아 전략 수산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19만 마리를 도내 연안 해역에 방류해 수산자원 조성에 힘써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공고 제 2021 - 2767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 및 시설에 관한 의견, 제2차, 3차 및 4차 의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및 관련 시설 변경 계획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 변경 결정(안)가 옹도지역 변경 결정(안) 조서

구분	기정	변경(안)	변경률 (%)
합계	51,400	51,400	100.0
옹도지역	48,141	47,911	99.75
특정지역	3,259	3,489	107.06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가,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률 (%)
변경	1. 수도공급설비	51,400	51,400	100.0
3. 전주 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수도공급설비	- 기정 : 51,400㎡ - 변경 : 51,400㎡	- 용수취수시설 전량 변경 - 용수취수시설 전량 변경

4. 전주 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 신유·생안
5.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청기간 내(수요일 포함) : 인접 주민의 의견
6. 공람 장소 :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7.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일일 우편함이 비치된 경우 공람기간 내 우편, 팩스(063-281-2653), 이메일(jh5117@zons.go.kr) 방문 등에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상기 사항은 전주 지 홈페이지(www.zons.go.kr)에서 확인하시고, 그 이외에 사항은 전주 시청(063-281-2263) 및 전주 기획과(063-281-2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주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